

대한민국 국도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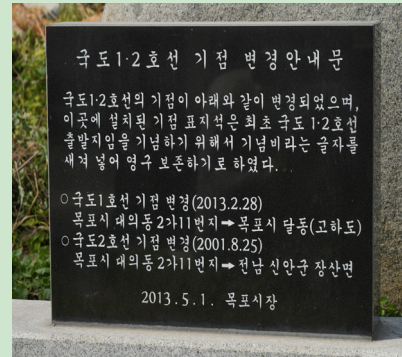
‘동서(東西)를 관통하는 푸른 호흡’ 국도 2호선이 받아낸 남해안의 역사와 삶

김동천 | 한국도로협회 교육홍보실 과장

대한민국의 고속 교통망은 주로 남북을 잇는 종축을 중심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한반도 가장 아랫단, 남해안의 복잡한 해안선을 따라 동서로 길게 누운 또 하나의 거대한 대동맥이 있다. 전라남도 신안군을 기점으로 삼아 목포, 강진, 순천, 창원을 거쳐 부산광역시 중구에 이르는 총연장 477.4km의 일반국도 2호선이다. 이 길은 단순한 콘크리트 궤적이 아니다. 거친 바다를 가로지르는 연륙교의 기술력과 근대 항구의 애환, 중화학공업의 중추를 지탱해 온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현대사다



국도2호선을 가로지르는 천사대교



국도 1·2호선 기점 기념비 변경안내문 표지



국도 1·2호선 기점 기념비

1. 푸른 바다를 가로지르는 동서 화합의 대동맥

대한민국의 고속 교통망은 주로 남북을 잇는 종축을 중심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한반도 가장 아랫단, 남해안의 복잡한 해안선을 따라 동서로 길게 누운 또 하나의 거대한 대동맥이 있다. 전라남도 신안군을 기점으로 삼아 목포, 강진, 순천, 창원을 거쳐 부산광역시 중구에 이르는 총연장 477.4km의 일반국도 2호선이다. 이 길은 단순한 콘크리트 궤적이 아니다. 거친 바다를 가로지르는 연륙교의 기술력과 근대 항구의 애환, 중화학공업의 중추를 지탱해 온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현대사다.

2. 근대 수탈의 신작로에서 섬과 대륙을 잇는 연결망으로

본래 이 길의 출발점은 근대 개항의 역사를 품은 목포였다. 목포대교 인근 구시가지에 세워진 ‘국도 1·2호선 기점 기념비’는 수탈의 아픔과 해방 후 재건의 역사를 고스란히 증언한다. 2001년 기점이 신안군 장산도로 변경·연장되면서 국도 2호선은 바다와 섬을 품는 연륙·연도교의 역사로 진화했다. 천사대교를 비롯한 수많은 다리는 고립되었던 서남해 섬마을의 육지 접근성을 높이며 단절을 극복하는 도로 문화의 이정표가 되었다.

3. 농어업의 젖줄에서 중화학 산업의 심장부로

서부 전남의 농어업 지대에서 출발한 도로는 강진과 장흥을 거쳐 4차로 고속화도로로 거듭나며 물류 혁명을 이끌었고, 영산강하굿둑과 무영로는 서남권 물동량의 대동맥이 되었다. 경남으로 이어지는 진주, 창원, 부산 구간은 대한민국 중화학공업과 수출 경쟁력을 견인한 산업화의 산실이다. 거대한 마산수출자유지역, 진해 해군기지, 부산항으로 직결되는 이 길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압축판과 다름없다.



보성녹차



축석루

국도 한눈에 보기

노선명	일반국도 제2호선 (신안~부산선)
총연장	477.4 km
기점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2001년 이전은 목포 기점)
종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6가 (옛시청교차로)
주요 경유지	신안 - 목포 - 영암 - 강진 - 장흥 - 보성 - 순천 - 광양 - 하동 - 사천 - 진주 - 창원 - 부산
핵심 상징성	영호남 동서 화합, 연륙·연도교 기술력, 근대 개항과 산업화의 동맥

4. 철길 따라 흐르는 남도의 서정과 영호남의 문화 교차로

국도 2호선은 남도의 독특한 지역성과 자연 경관을 가장 조화롭게 보존하고 있다. 경전선 철길과 나란히 달리는 보성과 순천 구간에서는 푸른 차밭과 순천만 갈대숲이 펼쳐져 속도 중심의 고속도로와 차별화된 여유를 선사한다. 영호남의 가교로서 전라도의 애절한 판소리와 갯벌 문화가 섬진강을 건너 경상도의 웅장한 가야 문화 및 해양 산업 문화와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문화적 경계선이기도 하다.

5. 무거운 산업의 옷을 벗고 상생과 치유의 풍경길로

과거 수탈과 산업화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은 국도 2호선은 이제 영호남 화합과 치유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다. 낙후된 남해안 연안 소도시들에 새로운 관광 활력을 불어넣는 핏줄이자,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국도 2호선 미식로드: 길 위에서 만나는 향토의 숨결

① 목포 장터식당의 꽃게살 비빔밥(장터식당)

국도 2호선의 육지 관문인 목포에서 만나는 별미다. 알이 꽉 찬 꽃게의 살만 정성스럽게 발라내어 매콤달콤한 양념에 버무려 내는데, 갯벌의 풍요로움을 품은 목포항의 역사와 근대 어시장 문화가 입안 가득 부드럽게 녹아내린다.

② 보성 벌교의 꼬막정식(국일식당)

보성 구간을 지날 때 빼놓을 수 없는 벌교의 상징이다. 여자만의 깊은 갯벌에서 채취한 참꼬막을 살짝 데쳐 숙회, 무침, 전 등으로 다양하게 즐기며, 조정래 소설 《태백산맥》 속 민초들의 삶과 남도 해안가의 강인한 지역성을 맛으로 대변한다.

③ 광양의 광양불고기(삼대광양불고기집)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인 광양에서 만나는 최고의 미식이다. 얇게 썬 소고기를 청동 화로의 숯불에 구워 먹는 음식으로,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이자 대규모 제철소가 들어서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광양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다.

④ 하동의 재첩국(동흥식당)

섬진강을 건너 경상도로 진입하는 길목인 하동의 대표 향토 음식이다. 모래톱이 발달한 섬진강 하구에서 잡은 신선한 재첩을 맑게 끓여내며, 은은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은 영호남을 포용하며 흐르는 섬진강의 상징성과 맑은 자연을 그대로 비춘다.

맺음말

신안의 외딴섬에서 시작해 부산의 변화가에서 끝을 맺는 국도 2호선은 대한민국 최남단의 삶을 묵묵히 기록해 온 거대한 역사책이다. 갯벌의 흙내음으로 시작해 거대한 제철소의 불꽃을 지나 거친 파도의 바다로 마무리되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단순한 도로가 아닌 대한민국이 걸어온 격동의 시간과 마주하게 된다. 남해안의 바람을 맞으며 이 길을 달리는 일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여정이다.

출처

- (1) 디지털영양문화대전 - 국도 2호선(<https://www.grandculture.net/yeongam/dir/GC04400266>)
-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국도 제2호선(<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7816>)
- (3) 지식백과 - 국도 2호선(<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20544&cid=46632&categoryId=46632>)
- (4) 지역문화종합정보시스템 - 목포 일반국도 1, 2호선 기점 기념비(<https://ncms.nculture.org/stonecraft/story/4870>)

